

기누가사야마 트레킹 코스

이 코스는 기누가사야마(870m)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. 운젠 온천가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이킹 코스인 이 코스는 초보자 및 가족 동반도 쉽게 도전할 수 있어 100여 년 전부터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19세기 말에 운젠으로 처음 피서를 온 외국인들은 다치바나완에 지는 멋진 석양을 보기 위해 이 언덕에 자주 올랐고, 이곳을 ‘선셋힐’이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. 당시 언덕은 양을 방목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주변이 거의 대나무와 관목, 잡초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멋진 풍경이 잘 보였습니다.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양을 방목하지 않게 되면서 숲의 오래 전 목초지가 재생되어 왔습니다. 오늘날 기누가사야마의 숲은 많은 들새와 이 지방 자생식물의 생육지가 되고 있습니다. 산 정상에는 전망대가 있어 동쪽으로는 온천마을과 화산,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만 등의 절경을 360도 뷰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.

지질학적 및 문화적 역사

기누가사야마는 25만 년 전 운젠의 여러 차례에 걸친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산입니다. 기누가사야마 기슭에는 시라쿠모노이케가 있습니다. 이 연못은 에도시대(1603-1867년)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, 물가에는 수수밭(손을 씻을 물을 담아 두는 그릇)과 편백나무, 삼나무 신목이 있습니다. 이것들에는 신성한 의미가 있으며, 이곳이 종교적 모임의 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